

MOVE

MOVE
BY STORY
VOL. 07

20130220

당신을 흔들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순미나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프랑스 봄-레-미모자 마을 여행 친구 - 이영미 대편집자가 말하는 인생 절정론(論)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갈라 한귀리
MUSE	절정을 간직한 물건의 이름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7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2월 2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예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오현걸
사진촬영	손미나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THANKSBOOKS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컬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BORMES-LES-MIMOSAS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봄-레-미모자 마을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TRAVEL

손미나의 여행 사전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봄-레-미모자 마을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BORMES-LES-MIMOSAS, FRANCE

Beautiful day 사랑에 취했어요
가슴 가득히 담아두고 싶죠
Everyday I wanna make you love
꿈꾸던 사랑이 오네요

- 바닐라 어쿠스틱의 〈Beautiful Day〉 中

가슴 가득히 담아두고 싶은 사랑처럼, 절정의 순간은 아름답지만 하다.
한켠에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안은 채.

프랑스 동남쪽에 위치한 봄-레-미모자 마을에 활짝 핀 미모자를 본다면 이런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
누구보다 먼저 봄을 맞이하는 봄-레-미모자 마을은 2월부터 만개한 미모자꽃으로 가득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비밀리에 여름 휴가를 보낼 만큼 지중해의 숨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섬세한 감성의 미모자 잎사귀가 다독여주는 봄-레-미모자 마을.
가슴 뛰는 노란 맥박으로 봄의 절정을 안겨주는 지중해로 떠나보자.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패널 바닐라어쿠스틱 성우 정기향 감독 이예결 대본 윤선에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최진주



툴롱
Toulon

이예흐
Hyères

라 롱드 레모흐
La Londe-les-Maurès

A. 봄-레-미모자
Bormes-les-Mimosas

B. Rayol-Canadel-sur-Mer

C. Sainte-Maxime

Route du Mimosas

- A. Bormes-les-Mimosas
- B. Rayol-Canadel-sur-Mer
- C. Sainte-Maxime
- D. Mandelieu-la-Napoule
- E. Tanneron
- F. Pégomas
- G. Grasse

Tanneron

E. Mandelieu-la-Napoule

Mandelieu-la-Napoule

D. F. G.
Pégomas

칸
Cannes

지중해

CÔTE D'AZUR, FRANCE

프랑스 코트 다쥐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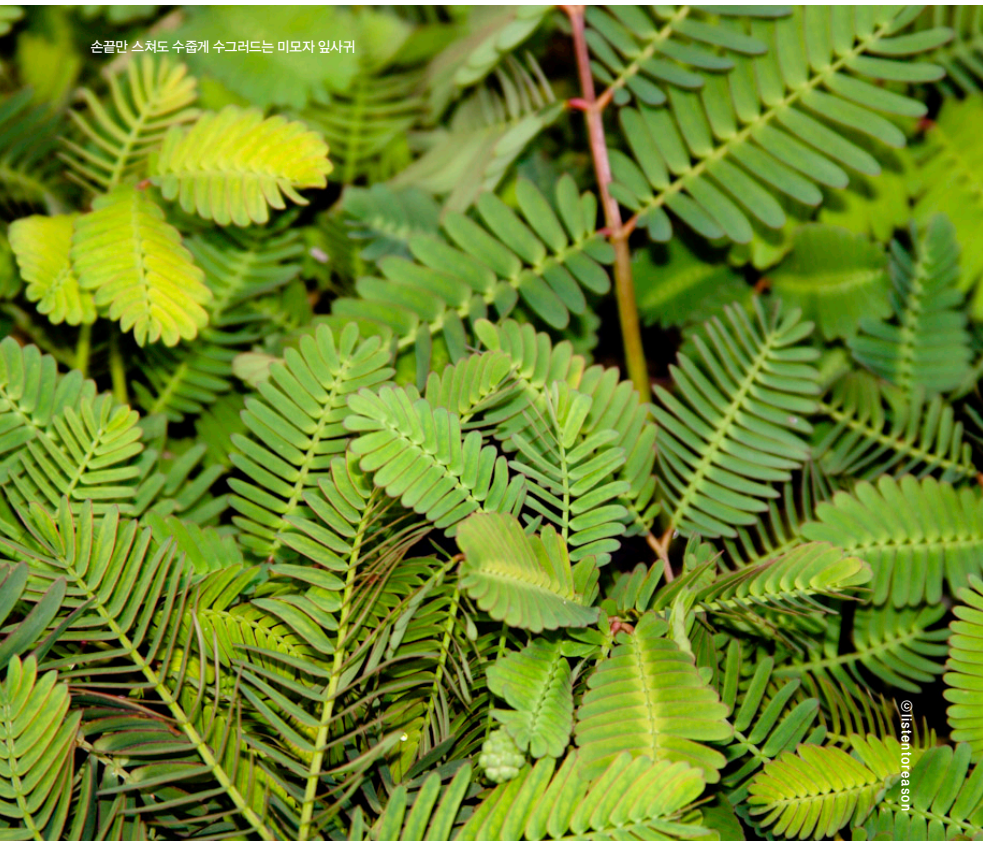
니스
Nice

봄-레-미모자의 매력포인트 1

섬세한 감성을 지닌 '미모자'

봄-레-미모자(Bormes-les-Mimosas)라는 지역 이름에 미모자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봄이면 이곳은 미모자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달콤한 향을 가진 미모자는 외향적인 꽃과 달리 잎사귀는 굉장히 내성적이다. 미모자 학명은 *Mimosa pudica*, 영어로는 Sensitive plant,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초 또는 잠풀이라 불릴 정도로 손끝만 스쳐도 자그마한 잎사귀들이 수그러든다. 그렇다고 마냥 나약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에서도 미모자가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에 핀 미모자. 섬세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미모자의 노란 맥박을 느껴보자.

손끝만 스쳐도 수줍게 수그러드는 미모자 잎사귀





봄-레-미모자의 매력포인트 2

봄을 가장 먼저 깨우는 '2월의 축제'

프랑스 남부가 한 해 중 가장 절정인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은 바로 2월. 2월이 되면 온 천지에 미모자 꽃이 절정을 이룬다. 봄-레-미모자를 포함해 주변에 미모자 꽃이 피는 마을들이 다 함께 축제를 열고, 장터가 열려 미모자 꿀, 미모자 비누, 미모자 향수 등 미모자를 원료로 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특산물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각 마을별로 미모자 아가씨를 뽑는다는 것. 마을마다 선발된 미모자 아가씨들이 주야로 꽃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마을 사람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중세 분위기를 풍긴다. 큰 규모의 축제는 아니지만, 어느 시골 마을의 동네잔치처럼 관광객도 쉽게 이웃이 되는 따뜻한 축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봄-레-미모자의 매력포인트 3

미모자의 길 ‘Route du Mimosas’

온몸으로 미모자를 느끼고 싶다면, 유럽에서 가장 큰 미모사 숲인 Route du Mimosas(미모자의 길)를 추천한다. Route du Mimosas는 봄-레-미모자에서 출발해서 무려 100km 정도로 미모자가 핀 길을 따라 여행하는 코스다. 이 길은 도보,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해 돌아볼 수 있는데, 다른 여행자와 동반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미모자의 향이 직접 닿는 도보나 자전거를 택하길 권한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내뿜는 산뜻한 공기와 미모자 꽃길을 따라 걸으며, 지중해 해안이 펼쳐진 풍경 덕에 전혀 힘들지 않을 테니 말이다.





@flickr: Michal Osmenta

봄-레-미모자의 매력포인트 4

지중해의 와이너리

프랑스하면 손꼽는 몇 가지 중에 와인을 빼먹으면 섭섭하다. 실제로 프랑스에는 포도를 만드는 양조장인 와이너리(winery)가 최소 천 개는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와인인 프로방스 와인으로, 봄-레-미모자 마을에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작고 예쁜 와이너리가 많다. 몇 집 건너 와이너리가 있을 정도로 마을 길목마다 와인 향기가 그득해 발길을 끈다. 친환경 재료와 정성이 가득 담긴 프로방스 지역의 와이너리 중 12곳은 와인 시음도 가능하니 꼭 맛보길. 또한 봄-레-미모자는 지중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허브가 많이 자라는 지역으로, 와인에 곁들이면 좋을 허브와 염소치즈의 맛도 으뜸이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프로방스의 속 깊은 와인과 지중해의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와인 입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봄-레-미모자의 매력포인트 5

프랑스 최고의 휴양지

중세 풍경, 북적거리지 않고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 그리고 저 너머 보이는 지중해까지. 프랑스 대통령도 파파라치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외국 귀빈이 오면 이곳 별장에 묵게한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적한 프로방스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재충전할 수 있는 봄-레-미모자 마을. 실제로는 부유한 지역이지만, 보헤미안적이고 아티스틱한 기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가 보이는 봄-레-미모자 마을



여행 친구

이영미 대편집자가 말하는 인생 절정론(論)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am.net

20여 년간 오직 책 만드는 일에만 몰두해온 작은 체구의 그녀.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철인3종 경기가 취미란다. 이런 그녀가 프랑스 작은 마을 미모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 봄이면 찾아왔다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 꽃의 기적과 절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모자 꽃처럼 매 순간 인생의 절정을 즐기고 있는 이영미 대편집자(現 웅진지식하우스 대편집자)의 여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Q. 봄-레-미모자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손미나 씨가 쓴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소설 마무리 후 꼭 가려고 했었다. 준비하면서 손미나 씨와 가자고 말로만 했었는데 각자 바빠서 실현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말을 자주 내뱉으니 결국 실현되더라. 그 일을 계기로 '원하는 것은 말로 내뱉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Q. 봄-레-미모자 첫인상은 어땠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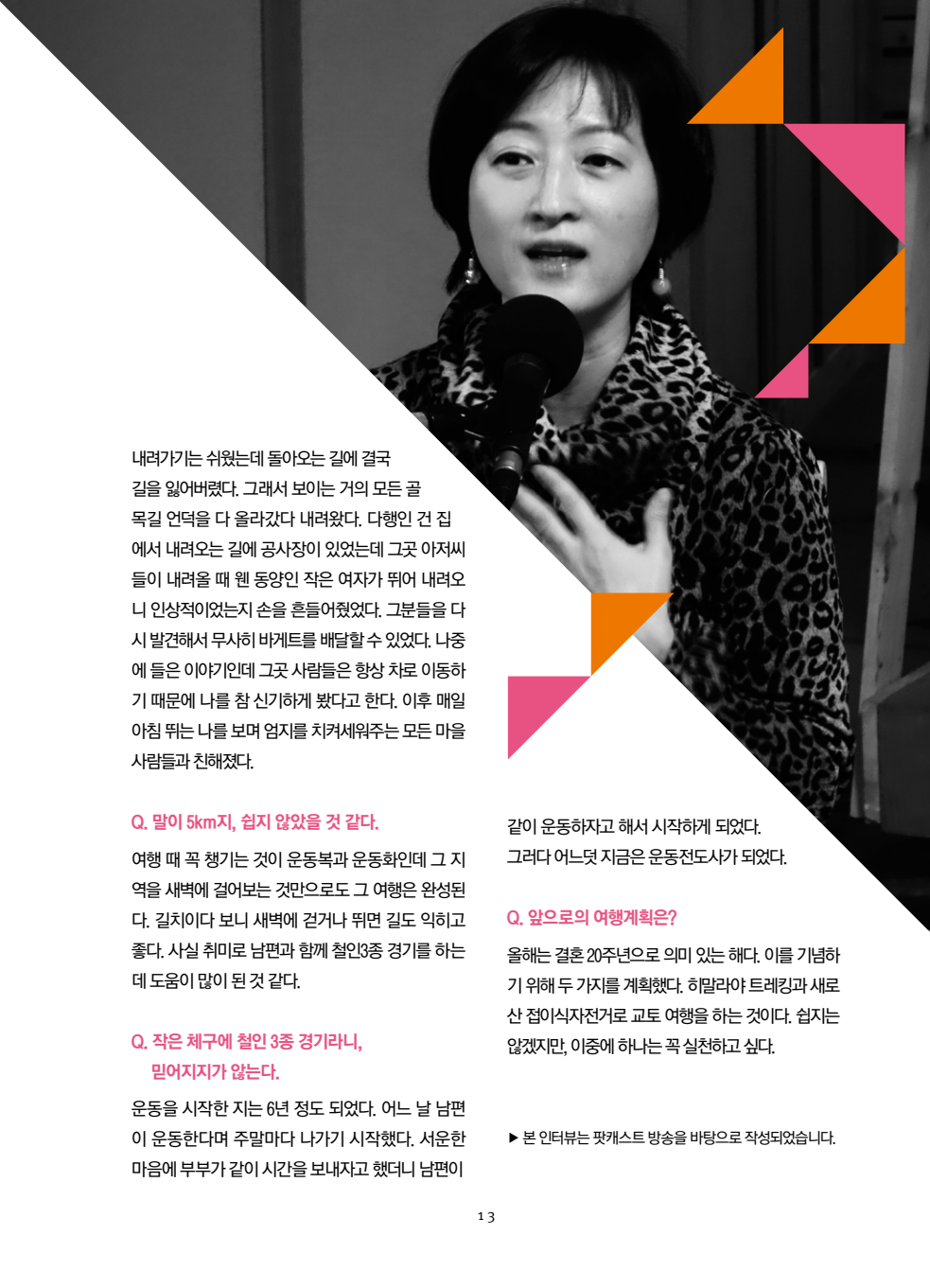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에 '꽃을 밟지 않고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만큼 꽃이 지천에 깔렸다. 짙은 노란색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착한 날은 드문드문 피어 있어서 감흥이 없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노란 미모자 꽃이 하루만에 활짝 핀 것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에 핀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절정'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다.

Q. 미모자 꽃처럼 인생에서 절정은 무엇일까?

절정이란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일 테고 소설에서는 클라이막스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절정은 딱 하나라는 것. 그러나 한번 지나가지만, 다시 오는 것이 절정이다. 산꼭대기에 올랐다고 끝이 아니라 내려오고 또 오르듯 반복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순간 절정이 찾아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춘이 다 간 것 같다가도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이고, 대학 4학년 때 늙은이 취급을 받아도 직장에 가면 신입직원이다. 인생이 이런 삶의 반복이듯, 힘들고 절망해서 이게 끝인가 싶어도 당신의 절정은 또 오고 또 올라갈 수 있다. 절정은 희망이 되는 말이다.

Q. 혹시 여행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랑스식 아침을 준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삼아 5km의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만 나오는 빵집에 가서 바게트를 사왔다. 그런데 첫날 문제가 생겼다. 사실 난 길치다. (웃음) 당시 묵었던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내려가기는 쉬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결국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보이는 거의 모든 골목길 언덕을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행인 건 집에서 내려오는 길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곳 아저씨들이 내려올 때 웬 동양인 작은 여자가 뛰어 내려오니 인상적이었는지 손을 흔들어서였다. 그분들을 다시 발견해서 무사히 바게트를 배달할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 사람들은 항상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를 참 신기하게 봤다고 한다. 이후 매일 아침 뛰는 나를 보며 엄지를 치켜세워주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Q. 말이 5km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여행 때 꼭 챙기는 것이 운동복과 운동화인데 그 지역을 새벽에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여행은 완성된다. 길치이다 보니 새벽에 걷거나 뛰면 길도 익히고 좋다. 사실 취미로 남편과 함께 철인3종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Q. 작은 체구에 철인 3종 경기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운동한다며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다. 서운한 마음에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더니 남편이

같이 운동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덧 지금은 운동전도사가 되었다.

Q. 앞으로의 여행계획은?

올해는 결혼 20주년이로 의미 있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두 가지를 계획했다. 히말라야 트레킹과 새로 산 접이식자전거로 교토 여행을 하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중에 하나는 꼭 실천하고 싶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갈라 한귀리 지금 당신의 花樣年華 화양연화 일상을 축제로 만들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언제일까?

컬처 플랫폼 갈라(www.galaaaa.com)의 한귀리 대표는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자 '놀이'다.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1차 삼겹살, 2차 노래방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인생의 절정을 유예시키는 전형적인 일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뭔가 즐기고 싶는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국은 먹고 마시지만 반복하다 늘어버린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갈라와 접선해보자.

"20대 내내 어떻게 하면 남들을 잘 놀게 할까 고민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하면서 즐거움도 컸지만, 정작 나 자신은 휴가 한 번을 제대로 못 쓰고 충전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빛나는 2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스물 아홉 되던 해 봄에 사표를 투척하고 스페인으로 떠났죠." 한대표는 대학시절 뮤직비디오 제작현장에 발을 들여, 4학년 때 tvN에 인턴으로 입사했고 연예뉴스와 '막돼먹은 영애씨'의 조연출로 방송 일을 시작했다. 이후 올리브TV, Mnet 등 CJ의 다양한 채널에서 프로그램 제작 일을 두루 경험한 뒤, CGV마케팅팀으로 자리를 옮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음식이 결합된 Mnet Pub을 론칭하는 등 복합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며 압축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제는 내가 좀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을 그만 두고 축제를 찾아 떠났지만, 회사 다니며 배운 것 하나하나가 지금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니 감사하죠.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보다 내가 재미있다고 하는 일이니, 우선 나부터 충분히 즐겨야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일도 오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짝 반짝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동자와 사심 없이 밝은 미소가 그녀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갈라(gala)'는 축제다. 그것도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절정의 퍼레이드. 수많은 문화예술을 갈라의 취향으로 큐레이팅해서 엑기스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옛 유럽의 살롱문화처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창작하고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예술적 영감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는 뮤즈, 그것이 갈라가 하는 역할이다.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창작의 원동력이었던 연인의 이름 또한 '갈라'였어요. 달리는 갈라가 죽은 뒤에는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정도로 강력한 뮤즈였죠. 스페인 여행에서 갈라를 발견하고, 청년 피카소가 루시놀 등 선배 예술가, 지식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던 바르셀로나의 살롱



'네 마리 고양이(Els Quatre Gats)'를 만나면서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스페인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술을 일상으로 향유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애호가들과 단절되어 있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려면 목숨을 담보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갈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에는 "예술가들과 잘 '갈라'먹자."는 의미와 "일상과 '갈라'놓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갈라'를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네이버에서 무작정 '창업'을 검색했다. 그때 마침 첫 번째 뉴스로 이니시스의 권대균 대표 등 벤처 1세대 창업자들이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프라이머'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작정 권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후 소셜펀딩의 도움도 받고, 처음 사업기획서도 써보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창업 프로세스도 공부하고 파트너도 영입하면서 회사의 틀을 갖추고 끊임 없이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격하게 아꼈던 것들을 모아 '스페인의 밤' 갈라 살롱을 열었을 때 무척 행복했어요. 플라멩코와 가우디의 건축과 스페인의 예술과 음식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치 바르셀로나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냥 술이나 먹지, 밥이나 먹지 할 때, 갈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다면 당신의 일상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이다. 또한 내가 즐기면서 더불어 예술가들도 후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인생의 절정이 젊음의 한 때일까요? 사회적으로 규정된 내가 아니라 '본연의 자신'을 만나는 매 순간이 화양연화가 아닐까요?" 그녀는 스스로의 지금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

갈라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영화 '아멜리에' 보고 또 보기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을 좋아해서 그의 영화를 즐겨 보는데, 특히 '아멜리에'는 볼 때마다 경탄하고, 볼 때마다 행복해진다. 빨강, 초록의 원색적인 색감으로 대표되는 영화 미술과 생동하는 에너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멜리에가 자기가 행복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안다는 점이다. 가령, 곡식자루에 손을 넣어서 만지는 느낌, 물수제비 뜨기 같은 것. 이처럼 자기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다.



2. 해외 페스티벌, 호텔, 클럽 사이트 서핑하기

축제를 워낙 좋아해서 전세계의 축제 사이트를 돌아 다니며 유심히 본다. 또 부띠끄 호텔들과 유명한 클럽들의 사이트를 돌면서 라인업을 살펴보고 여행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즐거찾기'를 살짝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fiberfib.com/index.php/en> <http://sxsw.com>

<http://www.weheart.co.uk>

<http://www.mamashelter.com>

<http://pitchfo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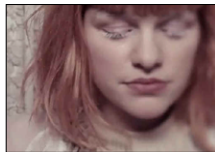


3. 멋진 뮤직비디오 영상 하루 종일 감상하기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뮤직비디오를 어려서부터 좋아했다. 최고의 음악과 영상을 한번에 보는 매력이 무엇보다 뛰어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특히 비일상적이고 기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알파인(ALPINE) 밴드와 AneBrun에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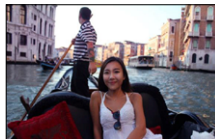
<http://www.youtube.com/watch?v=Ou0x5LfnY50>

<http://www.youtube.com/watch?v=1l130Qw69AQ>



4. 봉인된 외장하드 풀기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외장하드를 풀면서 시간여행을 한다. 오래 전의 여행 사진들, 옛날 친구들, 어릴 적 모습에 담긴 사진들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만나면 그때의 기억들이 복원되면서 마음이 순해지고 치유가 된다. (사진 : 베니스 여행에서)



5. 좋아하는 음악 크게 틀고 춤추기

클럽이든 축제든 집이든, 여럿이든 혼자서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스페인의 바티카 절벽 국립공원 휴양지에서 들었던 고탄 프로젝트(Gotan Project)의 음악은 누구든지 자절로 춤추게 한다. 아르헨티나 탱고를 프랑스의 일렉트 로니 음악으로 재해석한 고탄의 음악을 만나 당시 또한 춤추기를 바란다.

<http://www.youtube.com/user/GotanOfficial>





MUSE

절정을 간직한 물건의 이름

스토리텔러 김예니 — nabi@bombaram.net

살다 보면 왜 이 물건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물건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명품백, 명품구두, 명품옷 등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서 그 물건들을 칭송하고, 과시하고, 갖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 만원을 호가하는 그 가방의 가치가 가방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특별한 소재,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가방으로 보여지는 것 너머에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철학의 가치까지 매겨진 가격이라는 것이다.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 지는데 '명품을 감상하다.', '명품을 엄선해 전시했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Masterpiece'가 된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명품브랜드라고 부르는 것들을 영어로 설명할 때 우리는 'Luxury goods'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번역하자면 호화품, 혹은 사치품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 물건들에 걸맞는 이름이 아닐까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Masterpiece와 Luxury goods를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어도 명품은 名品(míngpǐn),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부르는 사치품은 名牌貨(míngpáihuò)으로 구분한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로도 오로지 작가의 영혼이 녹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작품만을 '명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명품Masterpiece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물건을 만드는 장인Master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통달한 그야말로 마스터여야 한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치열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는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내면의 에너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깊숙이 파고 들어간 물입의 무아지경,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영감이 섬광처럼 한 줄기 빛을 만들며 노하우와 소울이 집약된 최후의 한 조각a piece을 빛어낸다. 아니, 만들어낸다고기보다 장인의 혼이 손을 타고 물건 속에 깃들어 화



학작용을 일으키며 그 물건이 지니고 있던 본질이 저절로 꽃피어났다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완성된 물건 Masterpiece에는 마스터와 상호작용한 절정의 순간이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물건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사이코메트리가 된 듯, 물건 속에 간직된 영겁의 시간과 절정의 에너지가 전해져 와 전율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점차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명품은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치열하게 연구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정성껏 만들어낸 요리가 될 수도 있다. 절정을 간직한 것, 구분법은 결국 방향성의 차이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흐름,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진 물건은 사치품,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흐름, 몰입의 무아지경에서 저절로 탄생한 물건은 명품이라면 심플할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당신은 명품Luxury goods을 소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명품Masterpiece을 창조하는 사람인가? 답은 당신 안에 각인되어 있는 절정의 기억이 알고 있다. 당신은 내면의 에너지를 따라 절정 위에서 보았는가?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 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일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